

임채빈 ‘도장깨기’…이제 정종진만 남았다

5월 30일 선행 독주로 정하늘 제쳐
임채빈 vs 정종진 매치업 기대감 업
팬들, 두 선수 가상대결에 설왕설래
수도권-충청권 연대가 승부의 변수

“임채빈의 패달은 이제 정종진을 향해서 힘차게 달리고 있습니다!”

5월 30일 광명 결승에서 임채빈(25기 S1 수성 30세)의 경주를 중계하는 김찬호 아나운서의 목소리는 한껏 흥분되어 있었다.

임채빈이 이날 슈퍼특선급 정하늘(21기 동서울 31세)과 격돌한 경주에서 수도권 선수들이 대거 포진해 5대2의 수적 불리함을 겪으면서도 폭발적인 선행으로 독주 우승을 차지했기 때문이다.

정하늘은 3월 14일 경주에서 슈퍼특선급 성낙송 (21기 상남 31세) 황인혁 (21기 세종 33세)이 임채빈 뒤를 차례로 추주하고도 자신을 잡지 못하며 완패했던 결과를 분석한 듯, 이날 임채빈 뒤를 공략하는 정공법 대신 임채빈 앞에서 경기를 풀어나가는 변칙 작전으로 승부수를 띄웠다.

그러나 상대방을 욕박지르는 한 템포 빠른 선행승부 앞에서 준비했던 전략은 수포가 됐다. 이날 임채빈의 200m 랩타임 기록은 무려 10초30. 지금까지 누구도 도달하지 못한 200m 선행 최고 시속으로 레이스를 주도했다. 결승선을 통과할 때도 종속이 전혀 떨어지지 않은 채 막판까지 밀고 나가는 힘이 대단했다.

임채빈은 이렇게 현재 경륜 랭킹 2~4위인 황인혁 정하늘 성낙송을 선행승부로 차례차례 완파하며 ‘도장깨기’를 이어가고 있다. 이제 남은 상대는 현 경륜 챔피언 정종진(20기 김포 34세)이다.

예년 같으면 이달 말 펼쳐지는 상반기 왕중왕전에서 두 선수의 대결이 성사됐겠지만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개최가 어



경륜 최강자 정종진(왼쪽)과 ‘괴물 신인’ 임채빈. 5월30일 광명 슈퍼특선급 결승에서 정하늘 성낙송 등을 제치고 승리한 임채빈의 패달은 이제 최강자 정종진을 향하고 있다.

려운 상황이라 많은 전문가와 경륜 팬들은 둘의 가상대결을 그리며 설왕설래하고 있다.

●수도권-충청권 연대, 임채빈에게 통할까
정종진의 승리를 예상하는 쪽은 전무후무한 그랑프리 대상경륜 4연패 및 경륜 최다 50연승의 기록을 세운 관록과 수도권-충청권의 든든한 아군을 꼽는다. 경륜은 개인종목이지만 지역별로 나뉜 훈련팀 간의 연대를 통한 윈-윈 전략을 무시할 수 없다.

두 선수는 결승에 가야 맞붙을 가능성이 높는데 금요일 예선, 토요일 준결승에서 경상권 선수들이 줄줄이 탈락하면 임채빈은 홀로 나서게 되고, 초주 자리를 못 잡으면 천하의 임채빈도 선행 타임을 잡기 어렵거나 성급히 치고 나갈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반면 임채빈이 지금까지 보여준 괴력의 선행력과 시속의 절대적 우위라면 수도권-충청권 연대를 꺾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그동안은 수도권-충청권 선수들이 경상권 선수들을 철저히 견제했지만 임채빈이 함께 출전하는 경기에서는 맹목적으로 정종진 편에만 설 수 없다는 얘기다.

정종진이 2019년 그랑프리 결승에서 우군으로 생각했던 동서울팀 정해민 정하늘 신은섭이 반기를 들자 힘겨운 승부 끝에 가까스로 4연패에 성공했듯이 서로의 이해관계에 따라 오늘의 동지가 내일의 적으로 언제든지 돌변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예상지 ‘경륜박사’의 박진수 팀장도 임채빈이 연대 측면에서 불리하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았다. 경륜에서 연대는 합법적인 결과로 받아들여지지만 조력

행위는 엄연히 금지되어 있다. 지금까지 정종진 앞에서 선행을 했던 선수들도 회생만 강요당하지 않았다. 정종진의 도움으로 나뉘는 성과를 챙겨나갈 수 있었다.

그러나 임채빈을 만났을 때 그의 선행 타이밍을 뺏기 위해 본인의 성적을 포기한 채 정종진 앞에서 무작정 내달릴 수는 없다. 자칫 무모한 선행 이후 하위권으로 크게 뒤처지면 조력행위에 의한 실격처리를 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박 팀장은 “정종진과 임채빈이 실전에서 맞닥뜨리게 되면 수도권-충청권 선수들은 각자도생하거나 방관자에 머물 가능성이 있고 오히려 상대 견제에 능한 경상권 성낙송 박용범 (18기 김해 34세)이 임채빈의 뒤를 바짝 추주하면서 정종진을 난처하게 만들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김재범 기자 oldfield@donga.com

재시동 건 경정 강자들 정주현 1착 3회 싹쓸이

김민천·박정아 나란히 2승…김명진·문주엽 첫 승

두 달간 중단됐던 경정이 18회차(6월2~3일)를 시작으로 힘찬 시동을 걸었다. 긴 공백에 의외의 변수가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강자들은 역시 흔들리지 않고 제 몫을 해냈다.

●김민천·박정아, 강자의 면모 뽐내

출전 선수 중 강자로 인정됐던 김민천(2기 A1 46세)이 플라잉 스타트와 온라인 스타트 경주에 3회 출전해 1착 2회 2착 1회를 기록했다. 2021시즌 총 8회 출전해 5승을 거두며 강자다운 모습을 보여줬다. 그 뒤를 이어 박정아(3기 A2 43세)도 3회 출전해 1착 2회 3착 1회를 기록했다. 올 시즌 총 9회 출전해 6승으로 작년의 부진을 씻고 좋은 출발을 이어가는 모습이다.

정주현(8기 A2 38세)은 플라잉 스타트와 온라인 스타트를 가리지 않고 3회 출전에 모든 경주를 1착으로 싹쓸이하며 시즌 총 6회 출전해 1착 5회 2착 1회로 무서운 질주를 하고 있다.

다음으로 12기를 대표하는 선수 중 한 명인 류석현(12기 A1 33세)도 3회 출전해 1착 1회 2착 1회 3착 1회로 시즌 총 6회 출전해 3승을 기록하며 차세대 경정을 이끌 재목으로 충분한 기량을 선보였다.

강자다운 모습을 보여준 선수가 있다면 그렇지 못한 성적을 기록한 몇몇 선수들의 아쉬움도 있었다.

한진(1기 A1 46세)은 이번 회차에 기록 있는 스타트와 예전과 같은 날카로운 선회를 볼 수 없어 3회 출전해 2착 2회로 다소 기대에 못 미치는 성적을 보였다. 올 시즌 총 9회 출전해 1착 2회 2착 3회를 기록 중이다.

●올 시즌 첫승 거둔 김명진·문주엽

김명진(1기 B1 53세)은 1일차 2경주에서 본인이 가장 선호하는 1코스 출전해 150번 모터의 기력을 활용한 인빠지기 전개로 시즌 첫 승에 성공했다. 2일차 2경주 2코스에서 다시 한번 2승에 도전했지만 2착 입상해 연승 도전에는 실패했다. 하지만 스타트 집중력과 안정적인 1턴 전개를 지속적으로 보여준다면 눈여겨볼 선수라 할 수 있겠다.

문주엽(6기 B1 41세)도 1일차 두 번의 경기에서 3착 입상을 한 후 2일차 5경주에서 경정 전법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휘감아짜르기 전개로 드디어 첫 승에 성공했다.

이처럼 ‘경정고수’ 경기분석 위원은 “공백기 이후 경주가 시행된 만큼 선수들의 경기력에 다소 의구심을 가졌지만 실전 경기를 본 후 기우에 불과했다는 것을 새삼 느꼈다.”고 말했다.

이수진 기자 sujini22@donga.com

경륜 정해민, 웹 예능 ‘감사 드림’ 출격

경륜 정해민(22기) 선수가 새롭게 론칭하는 웹예능 ‘감사 드림 프로젝트’에 출연한다. 주위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인물을 찾아가 감사와 격려, 존경의 마음을 전하며 희망메시지를 전파하는 프로그램이다. 정해민은 이 프로그램의 첫 주인공으로 선정됐다. 2017년 경륜 선수로 데뷔해 그 해 신인

왕 타이틀을 획득한 정해민은 현재 특선급 간판선수로 활약 중이다. 선수로서 뿐만 아니라 매년 다양한 곳에 기부를 해 경륜계의 ‘기부 천사’로도 유명하다. 정해민은 프로그램 진행자 송은이, 신봉선과 함께 경륜 선수로 데뷔한 계기, 경륜 종목 소개, 코로나19로 장기간 휴장하며 어려웠던 점과 매년 기부하게 된 사연 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실내 민간체육시설 고용지원 모집 마감

코로나19로 매출 감소와 고용 위기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내 민간체육시설업계를 지원하는 고용지원사업 모집이 마감됐다. 고용지원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함께 시행하는 사업으로 스포츠산업계의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과 위기 극복을 위해 내놓은 추가 지원 대책이다. 4월 26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청을 받은 결과 총 9461명, 8876개 업체가 지원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58%로 가장 많았고 이어 경상, 전라, 충청, 강원, 제주 순이었다. 종목별로는 태권도, 헬스, 요가, 당구, 복싱, 탁구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 지원사업에 선정된 실내 민간체육시설은 1인당 월 160만 원의 인건비를 최대 6개월간 지원받게 된다.

책이다. 4월 26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청을 받은 결과 총 9461명, 8876개 업체가 지원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58%로 가장 많았고 이어 경상, 전라, 충청, 강원, 제주 순이었다. 종목별로는 태권도, 헬스, 요가, 당구, 복싱, 탁구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 지원사업에 선정된 실내 민간체육시설은 1인당 월 160만 원의 인건비를 최대 6개월간 지원받게 된다.

골프

KPGA ‘SKT 오픈’ 내일 티샷…함정우, 타이틀 방어 성공할까

제주 서귀포 핀크스 골프클럽서 열려
함정우 “첫 우승 대회라 애착이 크다”

한국프로골프(KPGA) 코리아투어 2021 시즌 6번째 대회 ‘SK telecom OPEN 20 21’(총상금 12억 원·우승상금 2억5000만 원)이 10일부터 13일까지 나흘간 ‘함께 그린, 행복 동행’이라는 슬로건과 함께 제주 서귀포시 핀크스 골프클럽(파72)에서 펼쳐진다. 올해로 24회를 맞는 이 대회는 1997년 ‘제1회 SK텔레콤 클래식’을 시작으로 2019년까지 매년 개최되다 지난해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 여파로 열리지 못했다.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년 연속 열렸던 핀크스 골프클럽에서 8년 만에 다시 펼쳐진다.

역대 최다 우승자는 ‘한국프로골프의 만형’ 최경우(51·SK텔레콤). 2003년, 2005년, 2008년 세 번에 걸쳐 우승컵을 들어올렸다. 올해는 선수가 아닌 공동집행위원장 자격으로 함께 한다. 대회 운영을 돕고, 소속사인 SK텔레콤



에서 제공하는 AI하이라이트 등 미디어 기술과 카카오VX와의 공동 개발로 새롭게 선보이는 스포츠 메타버스 중계 기술 자문을 위해 1년 만에 귀국했다.

올 대회의 가장 큰 관심사는 ‘다펜딩 챔피언’ 함정우(27·하나금융그룹)의 타이틀 방어 성공 여부. 2019년 이 대회를 통해 코리아투어 데뷔 후 첫 승을 따낸 함정우는 “첫 우승이라는 선물을 안겨준 대회인 만큼 애착이 크다”며 “우승 이후 많은 기회가 있었지만 추가로 승수를 쌓지 못했다. 올해 이 대회서 다시 우승하기 위해 그동안 그랬던 것 같다”며 대회 2연패에 대한 강한 집념을 내비쳤다.

함정우는 지난해 출전한 10개 대회 중 3개 대회서, 올해는 현재까지 나선 5개 대회 중 2개 대회서 2라운드까지 선두 자리에 위치했으나 3라운드 이후 ‘롯데부족’을 연출하며 최종일 우승까지는 연결시키지 못했다.

“연제나 우승할 수 있는 실력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지만 항상 마지막 열매를 따는 데 실패했다. 함정우는 “사실 나름 지긋지긋 하기도 하다”고 웃은 뒤 “‘연제는 되겠지’라는 마음으로 즐기면서 플레이할 것”이라며 특유의 ‘궁정맨’다운 마음가짐을 덧붙였다.

김도현 기자 dohoney@donga.com

2021 한국브랜드리더대상 수상
한국에 아마하 브랜드 입지 굳혀



이강종 회장

아마하골프의 국내 공식 에이전시를 맡고 있는 오리엔트골프는 ‘2021 한국브랜드리더대상(Korea Brand Leader Awards 2021)’에서 골프용품도소매 부문 최고 브랜드로 선정됐다고 8일 밝혔다.

한국브랜드리더대상 사무국 측은 “그동안 오리엔트골프가 혁신적인 기술력으로 생산한 뛰어난 제품을 우리나라 다수의 고객이 체험할 수 있도록 다양한 브랜드 경영 활동을 펼쳐온 부분을 인정받은 것”이라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오리엔트골프는 1990년 설립 이후 한국에서 독자적인 마케팅과 광고를 진행하며 아마하 브랜드의 국내 입지를 확고히 해왔다. 올 2월 1일부터 골프업계 최초로 아마하골프의



오리엔트골프가 전개하는 아마하골프의 김해공항 조명 광고. 사진제공 | 오리엔트골프

모든 클럽에 관한 품질 보증 판매에 들어가는 등 최근 들어서도 매스티지 클럽 선연과 리믹스 원정대 등을 통해 소비자 니즈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고객 감동’을 제1의 가치로 삼는 이강종 오리엔트골프 회장은 “한국 최고의 브랜드로 인정받은 것 같아 무척 기쁘다”면서 “오리엔트골프는 앞으로도 소비자 중심의 경영을 약속한다. 고객이 완벽하게 만족할 때까지 고객의 입장에서 판매하고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도현 기자 dohoney@donga.com

편집 | 김대건 기자 bong82@donga.com